

# 완도, 300억 들여 산림복지단지 조성한다

## 용역 착수 보고회... 자연 휴양림·치유의 숲·산림 레포츠 등 3개 지구 조성 계획

완도군은 지난 8일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조영식 부의장, 최정국 의원, 지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 산림복지단지는 완도읍 가용리 산214-1번지 일원, 94ha 면적에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등 3개 지구를 조성한다.

세부 조성 계획으로는 '자연 휴양림 지구'에는 트리 하우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 지구'에는 풍욕장, 트리 데크, 치유 숲길, '산림 레포츠 지구'에는 넷트 어드벤처, 어드벤처 슬라이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필수 시설과 더불어 유아를 위한 '유아 숲', 청소년들을 위한 '폭재 문화 체험장', 성인들을 위한 '산림 레포츠 시설', 고령자들을 위한 '치유

숲길' 등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모두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지단지 조성 대상지는 완도읍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해양치유 및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및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보고회에 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다양

한 방안을 강구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특성화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아우르는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물물관과 연계한 산림복지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했다.

/원도=이두시 기자

# 함평 월야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 권역형 건강증진형 프로그램·의료서비스 제공



함평군보건소가 월야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12일 "월야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식이 이날 오후 5시 30분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운영팀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3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월야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1억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완공됐다.

지상 2층 연면적 659.97㎡의 규모로 월야면 달맞이 문화센터 부지 내에 이전 신축했으며, 나산면과 해보면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형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진료공간(한방실·접종실)과 건강증진공간(차매상담실·건강증진실·프로그램실·영양실)을 갖추고 있어, 양·한방 진료는 물론 금연, 치매예방 및 걷진, 영양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힐링 프로그램, 만성질환 예방 및 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함평=김용희 기자

# 구례,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05명 모집 한다

구례군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0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형 715명, 사회서비스형 50명을 모집하고, 2023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위탁 선정된 (사)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에서 공익형 100명, 시장형 4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구례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을 기록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라 재신청 비율도 높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 순천시립도서관, 정부 평가 우수한 성적 수상 쾌거

## 행정안전부 장관상·한국도서관 협회장상 수상 등 성과

순천시는 2022년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을 통해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2017년부터 꾸준히 시민 책 쓰기 강좌를 운영하며, 2021년 11월 11일 순천시민 1540명이 1163종의 책을 출간해 한국기록원(KRI)과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단일 기초 자치단체 거주 시민 최대 동시 출판' 최고 기록을 인증받았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문화복지분야에서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룬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순천시민 책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책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순천시립연향도서관은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한국도서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공도서관의 대표 인문학공모사업으로 순천시립연향도서관은 5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0명의 학생들이 책을 완성했다.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관계자는 "책 읽는 도시에서 책 쓰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책 쓰기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독자에서 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 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해남, 시방역 총력 추진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집중소독



해남군은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3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 도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출지역도 급년 초 대비 35배 증가하여 전국적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통제초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의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생석회 차단벨트 또한 10곳을 추가로 설치해 철새 도래지 등 주요 진출입로 63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방역방제기, 살수차, 드론 및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과 해남군 소속차량 10여대를 동원, 가능한 모든 방역장비를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을 매일 집중소독 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 35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개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 1.4톤 및 생석회 63톤을 공급했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주 1회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가용하강시 소독여건 악화로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어 가금농가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각종 AI 차단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해남군에는 가금농장 35개소에서 닭 190만마리, 오리 21만마리 등 211만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 답답한 민원인... 장성군 퇴직 공무원이 돕는다

## 장성군 행정동우회 '민원 불편 멘토링제' 운영... 민원인-실무자 중재 역할

어렵고 생경한 민원업무에 퇴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도와면서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청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장성군 행정동우회'가 12월부터 '민원 불편 멘토링제'를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민원 불편 멘토링제'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불편·부당함을 느낀 경우, 장성군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다.

행정동우회장이 위촉한 퇴직 공무원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 실정에 밝은 점을 활용해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에 일조하고 있다.

장성군 행정동우회 관계자는 "행정 실무자와 민원인 간 중재 역할로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을 받은 민원들도 큰 만족감을 표시하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무슨 부서부터 찾아가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어 어려움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장성=심재시 기자

# 무안,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3년 연속 수상

## 문화·복지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

무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문화·복지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생산성지수 평가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 우비마을의 '공동체를 향한 못난이들의 힐찬 도전'으로 문화·복지분야 우수사례를 공모 신청

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 12개 우수사례에 최종 선정됐다.

도·농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낡아·오용 신도시 조성으로 신·구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가속화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해 나가는 우비마을 주민들과 못난이 미술관의 성공적인 사례가 인정을 받았다.

김산 군수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농촌공동체의 회복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 담양 창평전통시장 화재 피해 복구 총력

## T/F 구성 종합대책·임시 점포 설치·주차장 마련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창평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담양군이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창평 전통시장 주차장에 화재 사고 대책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여 행정인력 2명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도 현장에 파견해 상인들의 피해 접수 및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지원대책 및 금융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화재사고 대책 T/F를 구성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신속한 시설복구와 피해 상인 지원

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인근에 몽골형 천막과 컨테이너로 임시 점포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 임시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며,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구역은 철거 후 전면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시장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전통시장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 광양 '자원봉사자의 밤' 성료

## 자원봉사자 개인 11명·단체 9개 표창 수여

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중마동 모락에서 자원봉사자 기념식인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했다.

시는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올해 처음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페스티벌'과 기념식을 분리해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정인화 시장, 서영배 시 의장, 김윤혜 광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화합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개인 11명, 단체 9개에 표창과 패가 수여됐다.

세부적으로 개인은 △올해의 봉사왕 유인섭 △자원봉사 유공자 정준영 의 9명이 수상했으며, 단체는 △자원봉사 유공 단체로 새마을교통봉사대 광양지대 의 1개 △4주 4책 즐거운 테마 자원봉사 프로그램 최우수 (사)광양시자율방범연합회 읍내자율방범대 의 6개가 수상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야말로 광양시의 오늘과 미래를 가꾸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변함없는 봉사정신을 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 세계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참석

## 지방정부 정상들 간 총회 선언문 내용 논의·주제 발표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신안군수)은 지난 10-12일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드 콩그레(Palais de Congrès)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Regions4, 퀘벡주와 몬트리올시가 공동 주최하며 중국 운남성과 룬핑시가 지원한다.

박우량 회장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이행을 강화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형 세션 발표자로 나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신안군 실천행동과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례를 발표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인권과 소외 계층, 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갖춰야 할 생물다양성 등 자연 유산의 보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우량 회장(신안군수)은 "신안군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행동 강화에 대한 활동 등을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널리 알려져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